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관한 연구: 구성주의 자기 조직화를 중심으로*

황 선 정*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구성주의 자기 조직화 개념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분류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의 웅대성 및 취약성과 같은 인지내용, 인지 복잡성의 분화 및 통합과 같은 인지구조를 서로 조합하면 서로 의미 있는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881명 중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자기애 집단 128명을 선별한 후, 이 중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에 응한 93명의 자기애 웅대성 및 취약성의 인지내용과 분화 및 통합의 인지구조 변인 4개를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개의 하위군집이 확인되었고, 각 군집을 분화형, 웅대통합형, 취약형, 취약웅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네 개의 자기애성 성격 유형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자기애 질문지의 총점 및 하위요인, 초기부적응도식, 방어 유형, 정서, 및 대인관계 특성에서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 조직화 기제는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내적인 기준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병리적 자기애 하위유형, 자기 조직화,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 본 연구는 황선정의 2014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황선정, 가톨릭대학교 아동청소년가족 상담센터,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니콜스관 118호 / Tel : 02-2164-4656, E-mail : jabihwang@hanmail.net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 등 두 개의 이질적 속성이 하나의 성격 안에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은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이하 병리적 자기애, 혹은 자기애)¹⁾의 핵심 특징이다(Horvath & Morf, 2009).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실은 자기의 가치를 오로지 외부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만 타당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취약성이 내재해 있다(Fourie, 2010; Morf & Rhodewalt, 2001). 자기애의 이런 독특성은 ‘의식적인 우월감, 무의식적인 자격지심(Robins, Tracy, & Shaver, 2001)’이라는 역설로 드러나는데, 이 역설은 분열(splitting)이라는 원시적 방어에 의해 교묘하고 공고하게 유지된다(Kernberg, 1975/2008). 이렇게 자기애 안에 내재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속성은 병리적 자기애를 서로 다른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들 간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연구 흐름을 만들었다. 즉 웅대성 및 취약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자기애는 서로 다른 임상적 특징을 띤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Akhtar와 Thomson(1982)이었고, Wink(1991)

를 시작으로 Rathvon과 Holmstrom(1996)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자기애를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견해로 수용되고 있다(박세란, 2004; Foster & Campbell, 2007).

그러나 웅대성과 취약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해 왔다. 어떤 연구자들은 웅대성이 드러나는 방향에 따라 자기애를 분류하였고(예: Wink(1991)의 외현적 자기애 대 내현적 자기애), 어떤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웅대성 및 취약성이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으며(예: Gabbard(1998/2005)의 무감각형 대 과민형), 또 어떤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와 함께 자존감 및 정서조절에서 웅대성 및 취약성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예: Ronningstam(2009)의 적대형 및 병질형 대 수줍음형). Cain, Pincus, 및 Ansel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저마다 부여한 유형분류의 기준과 그에 따른 자기애의 명칭은 무려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애에 수많은 이름을 붙이는 일은 자기애의 속성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도 하지만 그 다양성 이면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Pincus와 Lukowitsky(2010)는 자기애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성격병리에 대한 임상적 개념화 안에는 외적인 부분(행동, 표현된 태도와 정서 등)과 내적인 경험(인지, 개인적 느낌, 동기, 욕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류 기준과 명칭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외적 현상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였다. 외적인 발현 양상만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자기애성 성격을

1) Alarcón과 Sarabia(2012)는 자기애 관련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전제되어야만 그에 대한 임상적 전략 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가 구분되어야 하고, 병리적 자기애 안에서도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 특질’과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 언급하는 ‘자기애’ 혹은 ‘병리적 자기애’는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속성을 규명하는 것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Pincus와 Lukowitski(2010)의 문제제기는 보다 근본적이고 내적인 방식으로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식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개념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reality)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미창출 과정에 의해 구성된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Kelly, 1955), 자기(self) 또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구성작용의 산물이라 본다. 유기체가 단백질과 같은 무기물질을 스스로 조직화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해가는 것과 같이, 인간 또한 자신의 지식 구조를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기(self)를 유지한다는 것이 자기 조직화 개념이다. 즉 자기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저항하고 걸러내는 역동적 조직화 과정을 통해 자기 시스템의 평형 상태를 만들고(Nowak, Vallacher, Tesser, & Borkowski, 2000), 이로써 인간은 자기만의 고유한 연속성과 독특성을 지닌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Guidano, 1987). 그렇다면 자기애 또한 ‘빛나고 거대한 자기’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과 관련된 자극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웅대함과 취약함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할 것이다. 이런 자기 조직화의 양상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며 그 양상의 차이가 결국 서로 다른 임상적 특징을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자기 조직화는 자신과 세상을 구성하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Kelly, 1955; Mahoney, 2003) 이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애의 하위유형

을 분류하는 것은 자기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조직화 기제를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계량적 지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지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Bieri, 1955) 지표이다. 인지 복잡성 개념은 원래 Kelly(1955)의 개인 구성개념 심리학을 근간으로 한다. Kelly에 의하면, 인간은 마치 개인적 과학자(personal scientist)와도 같이 자신과 세상을 구성하는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그 이론을 사용한다. 이렇게 축적된 개인적 이론들은 일종의 구성개념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데, Bieri 등(1966)은 예측의 효율성이 높은 구성개념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인지복잡성 개념²⁾을 처음 사용하였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개인은 단순한 개인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각하는데 더 다양한 체계를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므로 이 사람의 예측 효율성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인지복잡성에는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 두 차원이 있는데, 분화 차원이란 개인이 자신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혼재된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 차원이란 단일하고 고정된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복잡성 각 차원들을 측정하는 실증적 측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측정치를 사용하면 자기애가 웅대성과 취약성을 분화 혹은 통합시키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지복잡성 측정치는 구성주의 심리학의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Repertory Grid

2) Bieri(1966)는 인지 복잡성을 ‘다차원적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social behavior)를 해석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Technique) 혹은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이하 랩 그리드)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과 그 타인들이 지닌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성(즉, 구성개념)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도출하고, 그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성의 정도를 점수로 평정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점수들끼리 맺는 연관성을 수학적 지표들로 나타낸 것 중의 하나가 인지복잡성 측정치이다. 랩 그리드 매뉴얼에 의하면 다양한 분화 및 통합 측정치들이 있는데(부록 1),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화 측정치는 FIC(Functionally Independent Construction: Landfield, 1971)로써 ‘개인이 사용하는 구성개념 차원의 수’로 정의된다. 통합 측정치는 주로 intensity(Bannister, 1960)로써 ‘구성개념들 간의 연결 강도’로 정의된다.

그런데 분화 측정치에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통합 측정치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어 왔다. 그 이유는 인지복잡성 개념이 초기에 분화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것이 점차 통합 차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모호한 개념정의를 통합을 측정하는 방식에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인지복잡성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일으켰다(Rafacli-Mor & Steinberg, 2002). 통합 측정치와 관련된 혼선은 분화와 통합의 관계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통합은 분화와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분화와 독립적으로 이차원상에 직교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생긴 혼선으로 보인다. 통합 측정치 intensity를 둘러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ntensity 측정치에 해석상의 혼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intensity를 처음 소개한 Bannister(1960)는 이 값이 높으면 ‘복잡성(즉, 분화)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후 Adams-Webber(1979)가 이 측정치에 ‘통합’이라는 용어를 처음 명명하면서, 이 값이 높으면 ‘통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intensity에 대해 어떤 연구자는 낮은 분화 값으로(예: Dale et al., 2010; Fransella, Bell, & Bannister, 1977), 어떤 연구자는 높은 통합 값으로(예: Feixas, Lopez, Navarro, Tudela, & Neimeyer, 1992) 해석하는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측정치의 심리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다. Adams-Webber(1979)가 이 측정치를 사용했을 때 기본 전제로 둔 것은 분화와 통합이 서로 직교한다는 인지복잡성 사분면 모델이었다. 이 모델은 분화와 통합이 모두 높은 상태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어느 한쪽만 높거나 둘 다 낮은 상태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본다(Adams-Webber, 1979; Fransella, Bell, & Bannister, 2004). 이는 인지복잡성이 분화에서 통합으로 단계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궁극에는 통합적 복잡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Suedfeld(1994)의 관점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비교적 잘 기능하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정보처리의 융통성을 탐색할 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자기애와 같이 임상적 증상을 가진 사람의 인지복잡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우울증 환자의 인지복잡성 연구(Feixas, Erazo-Caicedo, Harter, & Bach, 2008)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통합 지표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통합이 분화보다 반드시 발달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는 ‘통합’이 합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재정의하고, 그 정의에 적합한 대안적 측정치를 선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손정락(1983)은 인지 복잡성 측정치에 수많은 난백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지복잡성 측정치들을 사용할 때는 인지복잡성 개념이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구성주의 심리학 이론에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심리학적 구성 개념 측정치는 그 구성개념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theory)과 동떨어진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Viney, 1992).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서 명시하는 심리적 증상 발생 과정에 입각한 통합 측정치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에서는 심리적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구성시스템의 투과성과 관련짓는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해석할 때 어떤 특정한 구성개념만을 선취(preemption)·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구성시스템은 투과성이 낮고 경직된 상태가 되며 그 결과 심리적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Neimeyer & Raskin, 2000). 웹그리드 매뉴얼에 제시된 인지 복잡성 통합 측정치 중에서 이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통합 측정치는 extremity이다. 이 측정치는 극단치로 평정된 구성개념의 빈도를 재는 것으로서 자기 구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Fransella et al., 2004). 즉 어떤 구성개념에 대해 극단적으로 평정하거나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구성개념에는 배타적이기 쉽다는 점에서 이 측정치는 구성주의에서 개념화하는 심리적 증상의 발생과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tensity에 대한 대안으로 extremity를 채택하고, 이를 ‘어떤 특정한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에 의하면, 자기애가 자기를 조직화하는 방식은 웅대성 및 취약성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분화 및 통합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상이해 질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서 웅대성과 취약성은 자기애가 인지하는 내용적 측면, 즉 인지내용에 해당하고, 분화와 통합은 인지내용을 조직화하는 구조적 측면, 즉 인지구조에 해당된다. 결국 자기애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은 인지구조와 인지내용의 함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기애 연구는 인지내용에 의해서만 유형을 구분한 것이 대부분이고(예: 웅대성 및 취약성의 상대적 우세성에 따른 각 유형의 정서적 특성의 차이 연구- 양진원, 2012; Zeigler-Hill & Besser, 2011, 유형별 자존감 특성 - Zeigler-Hill, Clark, & Pickard, 2008 등), 인지구조에 의한 유형구분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고, 유형별(외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의 구조 특징 비교 연구 정도만 있다(예: 황성훈, 2010). 성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용과 구조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고(Dimaggio, Semerari, Carcione, Nicolò, & Procacci, 2007), 특히 자기애와 같이 병리적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이유 또한 내용과 구조 간 자기 영속적 강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점(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 & Ramath, 2004)들을 상기해 본다면, 자기애의 하위유형 구분의 기준을 모색할 때 인지내용과 인지구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조직화 개념에 근거하여 병리적 자기애로 선별된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웅대성 및 취약성과 같은 인지내용,

분화 및 통합과 같은 인지구조(인지복잡성)를 상호 조합하면 서로 다른 임상적 특징을 지닌 자기에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유형이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병리적 자기에로 선별된 집단은 응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했을 때 자연발생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연구 문제 2. 각 하위 집단은 심리 정서적 특징(예: 자기애적 특징, 초기 부적응 도식, 방어 유형, 우울, 불안, 대인관계)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한 881명의 자료가 수거되었다. 이 중에서 황선정과 조성호(2015)의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 집단의 선별 기준으로 제안한 병리적 자기에 질문지(PNI) 총점 2.73 이상을 적용하여 총 128명을 선별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연구자가 후속 연구(랩 그리드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93명이 최종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93명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는 26명, 여자는 67

명이었고, 나이는 18세~28세(평균 21.62세, 표준편차 2.49) 범위 내에 있었다.

랩 그리드 인터뷰 및 인지 복잡성 측정치 도출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 복잡성 측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랩 그리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랩 그리드 인터뷰란 Kelly(1955)의 개인 구성 개념 심리학에서 고안된 구성개념 도출을 위한 면담 기법이자 연구 방법론으로, 전체 구성주의 연구방법론의 95%를 차지하고 있다(Dunnnett, 1988). 랩 그리드는 요소(elements), 구성개념(constructs), 평정(rating)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소는 인터뷰 참가자의 ‘자기 자신 및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예: 부모님, 스승, 친구, 이상적 자기, 싫어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구성개념(constructs)은 위 요소들 간의 성격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형용사들을 의미한다. 평정(rating)은 각 요소들에 대해 구성개념들이 가지는 값들을 리커트 척도(예: 7점 척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 요소에 대해 ‘친절한~불친절한’ 구성개념을 7점 척도로 평정한다고 했을 때, 매우 친절하면 1점, 꽤 친절하면 2점, 약간 친절하면 3점, 중간이면 4점, 약간 불친절하면 5점, 꽤 불친절하면 6점, 매우 불친절하면 7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진행은 참가자에게 먼저 비밀보장과 관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터뷰가 끝나면 참가자에게 본 인터뷰의 성격과 목적을 소개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및 보상이 제공되었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세부 절차에 대한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 인터뷰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행자가 달라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입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인터뷰를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다. 요소 및 구성개념 도출과 평정 절차는 평균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랩 그리드 자동 채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예: GRIDCOR 4.0)에 인터뷰 결과를 입력하여 인지 복잡성 측정치를 산출하였다.

채점 결과 산출되는 여러 인지 복잡성 측정치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화 측정치는 FIC, 통합 측정치는 extremity이다. FIC의 1개월 전-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Angelillo, Cimboric, Doster, & Chapman, 1985)로 보고되었다. 통합 측정치는 extremity로서 이는 여러 논란을 낳았던 intensity 측정치의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extremity의 1개월 전-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Feixas, Moliner, Montes, Mari, & Neimeyer, 1992)이었다. 각 측정치의 산출 공식과 예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도구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본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애 집단을 선별하고, 해당 집단의 웅대성 및 취약성 총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이다. PNI는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 및 그 하위 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Pincus 등(2009)이 제작하였다. 총 52문항으로 6점 척도 상에서 0점과 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 응답 값의 평균을 사용한다. 웅대 환상(Grandiose Fantasy: GF), 평가절하(Devaluing: DEV), 착취(Exploitativeness: EXP), 자기 숨김(Hiding the Self: HS), 특권분노(Entitlement Rage: ER),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CSE),

자기 희생/자기 고양(Self-Sacrificing/Self-Enhancement: SSSE)의 7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Pincus 등(2009)의 원 척도를 양진원(2012)이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원 척도의 ‘자기 숨김’ 요인이 제외된 6개 요인으로 나타나 최종 35문항이 선별되었다. 6개 하위 요인 중 웅대환상, 착취, 자기희생-자기고양은 웅대성 요인에 해당하고, 수반적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는 취약성 요인에 해당한다. Pincus 등(2009)의 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요인별로 .78~.93의 범위로 나타났고, 양진원(2012)이 확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요인 별로 .85~.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이 타당화한 35문항, 6점 척도(0~5점)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요인별로 84~.94의 범위에 있었다.

초기부적응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hort Form)

Young(1990)이 개발하고 이미열(2006)이 번안한 YSQ-단축판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hort Form)로, 이 질문지는 Young의 16개의 초기부적응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YSQ 완전형(YSQ-L2)의 205문항을 이미열(2006)이 타당화한 것이다. YSQ-단축판 질문지는 15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실패, 의존/무능감, 위함/질병에 대한 취약성, 융합 복종,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 특권의식, 부족한 자기통제’, 총 75개의 문항을 6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하위요인 중 Young, Klosko, 및 Weishaar (2003/2005)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심리도식

으로 제안한 도식 중 5가지 도식을 선정하여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 범위는 이미엘(2006)의 연구에서는 .63~.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94이었다.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n 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

이 질문지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 Gardner, Christian, 및 Siga(1983)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조성호(1999)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으로서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5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호(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응적 방어유형(유머, 전능, 승화, 부정)에 해당하는 문항과, 부적응적 방어유형 중 미성숙한 방어유형(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격, 소비)에 해당하는 문항 중,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성호(1999)가 보고한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64~.82이었고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 범위는 .50~.78이었다.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orean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KIAS-40)

이 척도는 Wiggins(1994)의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AS-R)를 모델로 하여 정남운(2004)이 개발한 것으로, 단일 형용사로 된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IAS-40은 대인관계 원형 모델 8분면에 해당하는 자기 확신 및 자기주장(PA), 비판과 통제(BC), 냉담함과 배타성(DE), 회피와 고립(FG), 비주장과 소심(HI), 순응과 양보(JK),

온화와 친절(LM), 사교성과 쾌활(NO)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정남운(2004)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9~.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53~.80이었다.

간이 정신진단 검사(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이 질문지는 SCL-90-R의 단축형(단축형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박기쁨, 이상우, 및 장문선(201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BSI-18은 기존 SCL-90-R의 9가지 증상 차원 척도 중 3가지 하위척도(신체화, 우울, 불안)를 사용한 것으로 하위척도마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기쁨 등(2012)은 하위 척도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71-.8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각각 .88, .86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t -검증, 군집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별된 자기에 집단 중, 레퍼토리 그리드 인터뷰에 응한 집단과 응하지 않은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성, 취약성 두 측정치와 통합, 분화 측정치들의 관계 양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에 집단이 인지내용과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분화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 위계적인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하위유형별 자기애 성격 특성,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특성에서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PNI 절단점 2.73(황선정, 조성호, 2015)에 의해 선별된 자기애 집단 128명 중 랩 그리드 인터뷰에 응한 93명을 제외한 35명을 비참가자 집단으로 명명한 후,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특성에서의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만약 자기애 참가자 집단이 ‘자발성’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종속측정치들에 있어서 두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방어유형 중 승화를 제외한($t(126)=1.99, p=.049$) 모든 종속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승화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도 수준 $p<.05$ 에 근접한 $p=.049$ 로

나타나 두 집단은 대체로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인지내용 및 인지구조 측정치의 관계성 분석 결과

자기애 집단의 인지내용 측정치인 웅대성 및 취약성과 인지구조 측정치인 분화 및 통합의 분포 양상 및 상호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 웅대성 및 취약성은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PNI)에서 도출된 웅대성 및 취약성 점수를 의미하는데, 웅대성은 사람들로 부터 찬탄을 받는 것에 대한 환상에 몰두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고, 취약성은 외부의 찬탄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존감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 분화 및 통합은 랩 그리드 인지복잡성 측정치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FIC와 extremity 점수를 각각 의미한다. 분화(FIC)는 개인이 사용하는 구성개념 차원의 수를 말하는데 이 점수가 높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양하고 혼재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통합(extremity)은 어떤 특정한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 점수가 높으면 다양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도 경직되고 고정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네 측정치들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웅대성은 취약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분화와 통합 또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8, p<.01; r=-.40, p<.01$). 자기애의 인지 내용 측면과 인지 구조 측면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

표 1.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량(N=93)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웅대성	-			
취약성	-.28*	-		
분화	-.15	-.06	-	
통합	.35*	-.18	-.40*	-
평균(M)	3.73	3.15	91.66	61.81
표준편차(SD)	0.59	0.54	17.29	13.38

* $p < .01$

표 2. 분화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웅대성, 취약성, 및 통합의 상관분석(편상관분석) 결과

	웅대성	취약성	통합
웅대성	-		
취약성	-.30**	-	
통합	.33**	-.21*	-

* $p < .05$, ** $p < .01$

과 웅대성은 통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35, p < .01$), 분화와는 부적의 관계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 = -.15, p = .18$). 또 취약성은 분화, 통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웅대성과 통합이 정적 상관을 보임에 따라, 분화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웅대성과 통합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33, p < .01$), 취약성과 통합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1, p < .05$).

웅대성, 취약성, 분화, 및 통합 측정치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먼저 군집분석을 위해 웅대성, 취약성, 통합, 분화 4개 측정치에 대한 표준점수를 투입하였다. 평균점수를 투입하지 않고 표준점수를 투입하는 이유는 서로 상이한 리커트 척도의 측정치로 군집분석을 할 때 표준점수가 평균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천영미 등, 2009). 이 표준점수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검토했을 때 2-4개의 모두 의미 있는 파형이 나타났다. 군집의 수를 결정할 때는 각 군집의 명칭과 해석 시 시사점을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다(이학식, 임지훈, 2013), 가능한 군집 수를 모두 검토하면서 각 군집의 중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군집수를 2개, 3개, 4개 단계별로 투입하여 최종 군집 중심점, 군집 프로파일 및 군집별 웅대성, 취약성, 분화, 통합 측정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례 수 및 측정치 추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표 3. 자기애의 최종 군집별 중심점(N=93)

	군집 1 분화형	군집 2 웅대통합형	군집 3 취약형	군집 4 취약웅대형
웅대성	0.08	0.73	-1.05	0.90
취약성	-0.62	-1.05	0.59	0.85
분화	0.71	-1.14	-0.30	-0.15
통합	-0.58	1.70	-0.39	0.47
군집크기	33	12	28	20

주. 각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임: $M=0$. $S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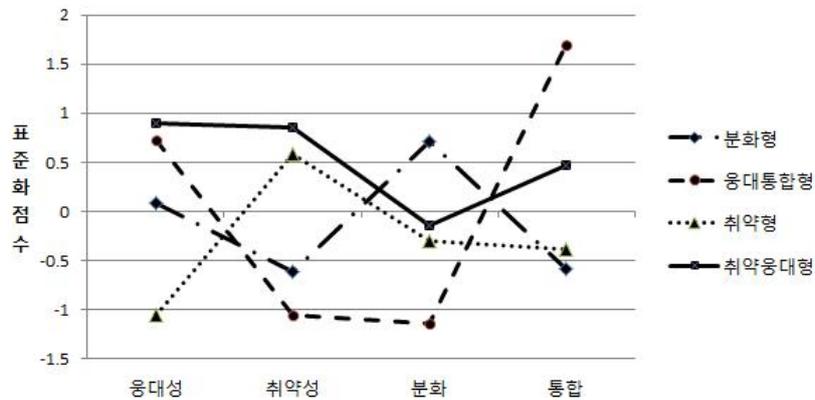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애의 군집 프로파일

군집 수를 4개로 지정하는 것이 차별적 특징을 잘 드러낸 의미 있는 분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집 1은 웅대성은 중간 정도이고 취약성은 낮으며 분화는 높고 통합은 낮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군집 2는 웅대성이 높고 취약성과 분화는 낮고 통합은 높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군집 3은 웅대성이 낮고 취약성은 높고 분화와 통합이 모두 중간 정도인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군집 4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모두 높고 분화는 중간 정도에 통합이 높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4개의 측정치 중 우세성이 큰 지표들

중심으로 군집을 명명한 결과 각 군집의 명칭과 사례수는 순서대로 분화형(33명, 35.5%), 웅대통합형(12명, 12.9%), 취약형(28명, 30.1%), 및 취약웅대형(20명, 21.5%)이었다.

하위유형별 심리 정서적 특성들에서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최종 분류된 4개의 군집이 심리 정서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자기애 총점 및 하위요인, 초기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특성 측정치를 종속

표 4. 자기에 하위유형별 자기에 총점 및 하위요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기에 총점 및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값 (3, 89)	Scheffe'	
	분화형 (n=33)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PNI 총점	3.03(0.20)	3.06(0.29)	3.13(0.29)	3.68(0.25)	32.69*	1, 2, 3<4	
웅대성 총점	3.10(0.38)	3.52(0.48)	2.46(0.42)	3.60(0.32)	40.57*	3<1<2, 4	
취약성 총점	2.81(0.32)	2.56(0.40)	3.50(0.39)	3.56(0.36)	40.61*	1, 2<3, 4	
웅대성	웅대환상	3.82(0.58)	4.06(0.68)	3.11(0.77)	4.21(0.48)	13.85*	3<1, 2, 4
	착취	2.60(0.87)	2.98(0.66)	1.64(0.76)	3.06(0.50)	17.82*	3<1, 2, 4
	자기희생 자기고양	2.88(0.66)	3.52(0.67)	2.63(0.79)	3.54(0.66)	8.93*	3 < 2, 4 1 < 4
취약성	수반적 자존감	3.00(0.42)	2.88(0.55)	3.65(0.41)	3.88(0.42)	25.50*	1, 2<3, 4
	평가절하	2.50(0.79)	1.78(0.65)	3.27(0.75)	3.15(0.94)	12.56*	1, 2<3, 4
	특권분노	2.93(0.58)	3.02(0.43)	3.59(0.54)	3.65(0.67)	10.57*	1, 2<3, 4

N=93, *p<.001

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하위유형별 자기에 총점 및 하위요인들에 있어서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구체적 비교를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각 유형은 뚜렷한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에 총점에 있어서는 취약웅대형이 가장 높았고, 웅대성에 있어서는 웅대통합형과 취약웅대형이 동일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고 취약형이 가장 낮았다. 취약성에 있어서는 취약형과 취약웅대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웅대성 하위요인 중 웅대환상 및 착취에 있어서는 나머지 세 집단이 취약형보다 높았는데, 자기희생 자기고양에 있어서는 특히 취약웅대형이 분화형보다 높았다. 취약성 하위요인 중 수반적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 모두 취약형 및 취약웅대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 보

면 취약웅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병리적 자기에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 유형의 웅대성은 웅대통합형만큼, 취약성은 취약형만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화형은 웅대통합형 만큼의 낮은 취약성을 갖고 있고, 웅대통합형은 취약웅대형만큼 높은 웅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약성이 가장 낮다는 것, 또 취약형은 취약성이 높고 웅대성이 낮은 것이 주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유형별 초기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5).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는 특권의식 도식만 제외하고($F(3, 89)=1.31, p=.276$),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합/수치심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구체적 비교를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정서적 결핍에 있어서는 취약형이 분화형 및 웅대통합형보다 높았고, 사회적 고립 및 결합/수치심

표 5. 자기애 하위유형별 초기부적응 도식 및 방어유형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값 (3, 89)	Scheffe'
		분화형 (n=33)	응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응대형 (n=20)		
초기부적응도식	정서적결핍	11.69(5.90)	7.92(3.80)	17.10(7.22)	12.55(5.94)	7.51**	2, 1<3
	사회적고립	13.97(6.41)	9.17(4.75)	19.71(6.66)	16.00(7.00)	8.59**	2, 1<4, 3
	결함/수치심	13.80(6.05)	8.67(4.64)	18.57(6.40)	15.60(7.19)	7.45**	2, 1<4, 3
	실패	15.17(7.11)	8.25(3.36)	19.29(7.26)	11.95(5.15)	9.88**	2<1, 3 4<3
	특권의식	14.39(7.37)	14.17(2.98)	16.29(3.56)	15.10(5.03)	1.31	n.s
	수동공격	9.88(2.46)	9.50(3.80)	9.57(2.74)	9.00(2.32)	0.51	n.s
	승화	7.91(2.75)	7.17(2.17)	7.36(3.31)	7.25(3.13)	0.33	n.s
	행동화	7.93(2.24)	7.75(2.70)	7.14(2.97)	8.50(3.15)	1.00	n.s
	유머	7.70(3.27)	8.92(1.88)	6.36(2.80)	7.85(3.22)	2.41	n.s
	투사	4.76(1.66)	4.33(1.56)	6.04(2.35)	5.90(2.65)	3.22*	n.s
방어유형	부정	6.00(2.05)	5.75(2.05)	5.21(1.91)	6.06(2.01)	0.64	n.s
	전능	7.00(2.76)	8.58(2.11)	4.32(2.14)	5.95(2.78)	9.96**	3<1, 2 4<2
	공상	9.00(2.59)	7.83(2.65)	8.89(2.79)	9.70(3.57)	1.05	n.s
	분리	5.15(2.27)	4.58(2.11)	5.86(3.47)	5.65(2.85)	0.73	n.s
	소비	6.97(3.09)	7.42(3.50)	6.82(2.476)	8.00(3.24)	0.71	n.s

N=93, *p<.05, **p<.001

에 있어서는 취약형 및 취약응대형이 분화형 및 응대통합형보다 높았다. 실패에 있어서는 분화형 및 취약형이 응대통합형보다 높았고, 취약형이 취약응대형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 보면, 취약형은 대체로 취약응대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기부적응 도식을 공유하지만 실패 도식에 있어서는 취약응대형보다 더 높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화형 또한 초기부적응 도식에서 대체로 응대통합형과 비슷한 수준을 지니지만 특히 실패 도식에서만

응대통합형보다 더 높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방어유형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전능과 투사만이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3, 89)=9.96, p<.001$; $F(3, 89)=3.22, p<.05$), 이 중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전능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능에서 분화형과 응대통합형이 취약형보다 높았고, 취약응대형보다 응대통합형이 더 높았다. 투사에서는 취약형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응대통합형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

니었지만, 유머에서 웅대통합형의 평균 점수가 경미한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3, 89) = 2.41, p = .072$). 즉 분화형과 웅대통합형은 전능, 취약형은 투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약웅대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방어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유형별 정서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6). 먼저 정서 영역에서는 우울과 불안 모두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은 분화형, 취약형, 취약웅대형이 웅대통합형보다 높았다. 불안은 사후검증 결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취약웅대형이 가장 높았고 웅대통합형이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자기 확신/자기주장, 회피/고립, 비주장/소심, 온화/친절, 사교성/쾌활에서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

후검증 결과, 자기확신/자기주장에서는 분화형과 웅대통합형이 취약형보다 높았고, 회피/고립에서는 나머지 세 집단이 웅대통합형보다 높았으며, 비주장/소심에서는 취약형이 웅대통합형보다 높았고, 온화/친절에서는 반대로 웅대통합형이 취약형보다 높았다. 사교성/쾌활에서는 취약형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세 집단 중 분화형보다는 웅대통합형이 높았고, 취약형보다는 취약웅대형이 높았다. 이 결과로 보면, 웅대통합형은 분화형보다, 그리고 취약웅대형이 취약형보다 더 사교성/쾌활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 조직화 기제에 따라 병리적

표 6. 자기에 하위유형별 정서(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하위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값 (3, 89)	Scheffe'
		분화형 (n=33)	웅대통합형 (n=12)	취약형 (n=28)	취약웅대형 (n=20)		
정서	우울	12.12(4.70)	5.58(5.07)	12.11(4.56)	13.11(6.27)	5.95**	2 < 1, 3, 4
	불안	8.27(4.70)	5.33(4.52)	9.82(5.74)	11.15(7.63)	2.80*	n.s
대인관계	자기확신/자기주장	10.55(3.42)	13.33(1.78)	7.68(2.61)	11.15(2.76)	12.78***	3 < 1, 2
	비관/통제	10.12(2.77)	10.58(2.57)	10.82(2.13)	11.80(2.76)	1.80	n.s
	냉담/배타성	8.76(3.46)	7.25(3.31)	9.96(3.00)	10.05(3.62)	2.47	n.s
	회피/고립	9.06(3.32)	5.67(1.92)	11.25(2.95)	11.10(3.67)	10.58***	2 < 1, 4, 3
	비주장/소심	9.06(3.36)	7.50(1.68)	10.75(2.93)	8.40(2.30)	4.72**	2 < 3
	순응/양보	9.52(2.93)	10.75(2.05)	10.25(3.19)	9.20(2.97)	1.02	n.s
	온화/친절	11.49(2.67)	13.83(1.47)	10.79(3.27)	12.40(2.87)	3.78*	3 < 2
	사교성/쾌활	10.91(3.01)	13.92(1.62)	8.32(3.29)	11.00(2.81)	11.04***	3 < 1 < 2 3 < 4

N=93, * $p < .05$, ** $p < .01$, *** $p < .001$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기애는 웅대성과 취약성을 분화 혹은 통합 차원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것이고,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정서적 특징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애의 인지내용에 해당하는 웅대성 및 취약성 점수와, 인지구조에 해당하는 인지 복잡성 분화 및 통합 점수를 투입하여 자연발생적인 하위 군집으로 묶이는지 검토하고, 각 군집의 심리 정서적 특성들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각 군집은 서로 독립적인 임상적 실체를 가진 자기애의 하위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집분석 결과 자기애 집단은 각 지표들의 추이를 고루 반영해주는 4개의 군집-분화형, 웅대통합형, 취약형, 취약웅대형-으로 분류되었고, 각 군집(자기애 하위유형)들의 자기애적 특성, 초기 부적응 도식, 방어유형, 정서, 및 대인관계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자기애적 특성, 특권의식을 제외한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모든 정서 특성에서 하위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일부 하위요인에서도 하위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특권의식에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Zeigler-Hill, Green, Arnau, Sisemore, 및 Myers(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권의식 도식은 어느 하나의 하위유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라는 주장들(강선희, 2002; 이인숙, 2002; Miller & Campbell, 2008)이 이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전능, 투사,

유머를 제외한 방어유형에서, 그리고 비판/통제, 냉담/배타성, 순응/양보 등의 대인관계에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두 척도의 불안정한 심리측정적 속성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 중 이 두 척도의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에 (두 척도 모두 .62), 이것이 유형간 변별도를 떨어뜨리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 둘째, 특권의식과 마찬가지로 자기애 유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 근거로 황선정과 조성호(2015)의 연구에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애 집단과 비자기애 집단의 차이 검증을 실시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들의 대부분과 위 요인들이 일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이들 요인이 자기애에 공유되는 특징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밝혀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본 논의에서 주안점으로 삼을 부분은 각 유형들의 임상적 실체를 더욱 명료하게 기술하는 일이다. 앞에서 사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기술된 각 유형의 심리 정서적 특징들이 어떠한 조직화 기제(즉 인지 구조의 분화 및 통합)에 기인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각 유형들이 기존의 자기애 이론에서 제시하는 모델 중 어떤 것에 가까운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4개 하위유형들의 임상적 실체를 더 생생하게 만들뿐 아니라, 하위유형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한 자기

조직화 기제의 이론적 타당성 또한 아울러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먼저 분화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기에 충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면서, 웅대환상과 착취와 같은 웅대성이 취약성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화형은 취약형과 동일한 수준의 실패 도식을 지니고 취약형보다는 약간 우세한 전능 방어를 보인다는 것 외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 심리 정서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다. 이 유형의 인지 구조는 분화가 높고 통합이 낮은 구조이다. 즉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개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동시에 특정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낮은 구조이다. Linville(1985)에 의하면 분화가 높은 구조는 자기복잡성(self-complexity)이 높은 구조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들이 다양하여 부정적 정서가 경험되더라도 다른 격실에 있던 자기 측면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에 오염(spill over)되지 않고 정서 조절이 용이하다. 그러나 Donhue, Robins, Roberts, 및 John(1993)은 분화 차원만 고려한 자기복잡성 개념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높은 복잡성은 통합된 자기가 결여되고 파편화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통합이 고려되지 않는 복잡성은 정서 조절과 무관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통합 수준은 낮고 분화 수준만 높은 분화형이 정서적 취약함과 더 관련된 초기부적응 도식 부분이나 우울과 회피/고립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구성, 즉 높은 분화로 인한 불명확한 자기 인식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에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면서 웅대성이 경미하게 높은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 상태에 대해 인식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분화형은 병리적인 자기애성 성격으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 위치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과 가장 가까운 기존의 자기에 이론 모델을 찾아본다면, Millon 등(2004)이 기술한 ‘주장형(assertive pattern)’ 자기애에 가깝다. Millon 등은 주장형 자기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구분되는 경미한 자기애라고 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p.336)”라고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웅대통합형은 자기에 총점 면에서는 분화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웅대성은 높으면서 뚜렷하게 낮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별적 특징이다. 초기부적응 도식이나 부정적 정서 특성은 가장 낮았고 긍정적 양상의 대인관계 특성(예: 자기확신/자기주장, 온화/친절, 사교성/쾌활)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어유형에 있어서도 조성호(1999)가 성숙한 방어유형으로 분류한 전능과 유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인지 구조는 통합이 높고 분화가 낮은 구조이다. 즉 구성개념을 선취·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강하고 다양한 구성개념을 사용하는 정도는 약한 구조이다. 웅대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통합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웅대한 측면에 관한 것만으로 자신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웅대성과 통합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Showers(1992)에 의하면 이런 구조는 자기구획화(self-compartmentalization)가 높은 구조이다. 자기구획화가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 측

면들(self aspects) 중에서 자신에 관한 좋은 속성과 나쁜 속성을 배타적으로 나누어 별개의 정신적인 방에 배치하는 구조이다(황성훈, 2010). 웅대통합형이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속성을 낮게 보고하는 동시에 사교적, 우호적인 대인관계 등의 긍정적 속성만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유머나 전능과 같이 성숙한 방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면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보고되지 않은 것 등은 일종의 긍정적 구획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외현상 웅대통합형이 적응적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식적인 우월감 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자격지심(Robins et al., 2001)에 의한 구획화 현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자신의 좋은 것만’ 취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자기상이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기에 연구에서 웅대통합형과 가장 유사한 외현적 자기에의 취약한 측면에 대한 조망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데(양진원, 2012; 한수정, 권석만, 2010; Horvath & Morf, 2009), 이는 외현적 자기에의 긍정적인 특성 이면에는 취약함이 분열된 채 내재해 있다는 Kernberg(1975/2008)의 관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웅대통합형 또한 외적인 웅대성 이면에 내적인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기보고가 아닌 다른 방법론을 통해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과 가장 가까운 기존의 자기에 이론 모델을 찾아본다면, Kernberg(1975/2008)가 개념화하는 자기에를 들 수 있다. Kernberg는 “이들은 외적으로는 심하게 혼란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며 충동조절도 잘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매우 부풀리면서 타인의 갈채를 지나

치게 요구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자기중요성을 만족시킬 자원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지루해한다. 이들의 내면 깊은 수준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Kernberg, 1975, p.240)”라고 기술하였다.

다음은 취약형으로, 이 유형은 낮은 웅대성과 높은 취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우울 정서, 회피/고립과 비주장/소심 등 부정적 대인관계 특성 등 취약한 측면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보고하였고, 외향적이고 우호적 대인관계 등 적응적 양상은 가장 낮게 보고하였다. 방어 또한 Kernberg (1975)가 원시적 방어로 분류한 투사 방어를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인지 구조는 중간 정도의 분화와 통합 수준을 가진 구조였다. 즉 분화나 통합의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구조일 수 있다. 자신의 취약함과 관련된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화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화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약형은 자신의 취약함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명료하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또 웅대통합형 보다 더 낮은 통합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웅대성을 집중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취약형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만을 전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웅대취약형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형과 가장 유사한 내현적 자기에의 수치심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내적으로는 웅대한 환상을 지니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욕구와 야망에 강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Akhtar, 2003; Dickinson & Pincus, 2003; Ronningstam, 2005), 이들이 자신에 대해 보고하는 전적인 취약함은 Alatiq, Crane, Williams, & Goodwin(2010)이

주장한 대로 일종의 방어일 수 있다. 취약형 또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자기 보고가 아닌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취약형과 가장 유사한 기존의 자기에 모델을 찾아본다면, Kohut(1971)의 자기애를 들 수 있다. Kohut은 “이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모종의 반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손상받기 쉬운 자존감을 지니며 대인관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우울감과 불만족을 호소한다(Gabbard, 1998/2005, p.76)”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용대형은 자기애 충점, 웅대성, 및 취약성 요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부적응 도식에서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과 같은 취약한 도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 유형 중 유일하게 불안 점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대인관계 특성에서는 회피/고립, 자기확신/자기주장, 사교성/쾌활 등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고하였다는 점 등 취약용대형은 양가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들은 방어에 실패함으로써 내적 불안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인지 구조는 통합이 높고 분화가 중간 수준인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통합이 높은 웅대통합형의 심리적 특성과 분화가 중간 수준인 취약형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웅대통합형처럼 통합이 높기 때문에 웅대성을 외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인관계 특성에서 외향적이고 자신감 있는 양상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취약형과 같이 분화가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취약함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높는데 비해, 그 취약함이 자극될 때 유발되는 불안정하고 우울한 정서를 다루는 것이 취약용대성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이 취약한 정서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가 이들에게는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취약함은 조절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피적이고 양가적인 관계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취약용대형과 가장 유사한 기존의 자기에 모델을 찾아본다면, 구성주의 심리치료자인 Dimaggio 등(2007)이 기술하는 자기애를 들 수 있다. 다른 이론가들이 자기애성 성격이 웅대성과 취약성 중 우세한 특성을 중심으로 특정한 유형으로 나뉘다고 본 것과 달리, Dimaggio 등(2007)은 웅대성과 취약성이 한 개인에게 번갈아 나타날 수 있으며 진단된 하위유형은 단지 진단될 당시의 가장 두드러진 상태를 특징짓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한 개인 안에서 웅대성과 취약성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경험되는 기복(interstate swing)’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자기애의 내적 상태는 텅 빈 느낌과 지루함, 정서적 마취 상태에서 출발하여 과대망상적인 걱정으로 급격히 전환(shift)되고, 성공 경험에 의한 일시적 열렬함의 상태로 변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처음의 텅 비고 공허한 상태로 귀환된다(p.83)”고 기술하였다. 또 한편으로, 이 유형은 웅대성과 취약성의 상보성 측면에서 Millon 등(2004)이 기술한 보상형 자기애(compensatory narcissism)와도 유사하다. 이들은 “열등감에 짓눌린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물러나 있거나 우월감이라는 착각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지위, 인정, 명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다가, 착각이 깨지면 가상적 성취를 인정하는 상상의 세계

로 더욱 퇴각하는 특징을 지닌다(p.337)". 보통 자기애성 성격의 보상적 작업은 분열이라는 무의식적 기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만 취약용대형은 이것이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양가성은 더욱 극심하고 명백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4개의 자기애 하위유형은 경미한 자기애에서부터 심각한 자기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화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기애에 해당하고 취약용대형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자기애에 해당하며, 웅대통합형과 취약형은 두 유형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현상으로는 웅대통합형이 더 적응적이고 취약형이 더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웅대성 이면에는 취약성이 내재한다는 것을 많은 임상가들(예: 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2008; Kohut, 1977 등)이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웅대통합형이 취약형보다 실제로 더 적응적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자기 보고식의 방법론이 아닌 실제적 구성개념의 웅대성 혹은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예: 렵 그리드 기법)을 적용하여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의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이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분류하는데 보다 내적이고 근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웅대성 및 취약성과 같은 인지내용을 분화 및 통합과 같은 인지구조가 조직화하는 방식은 개인차가 있었으며, 이 차이가 자기애 집단을 4개의 자연발생적 군집으로 묶어 주었다. 이들 군집, 즉 자기애 하위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임상적 실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심각성 수준에 따라 연속선상에 위치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각 하위유형은 기존의 자기애 이론에서 제시하는 모델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유형 구분 기준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 연구에 구성주의 렵 그리드를 적용하여 인지구조를 탐색한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렵 그리드는 일종의 투사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기애와 같이 자기고양적 편향이 일어나기 쉬운 연구 대상들의 내적 세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imaggio et al., 2008). 자기애가 자기를 조직화시키는 방식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과 그 차이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렵 그리드를 적용함으로써 직접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렵 그리드에서 도출하는 인지 복잡성 측정치 중 통합 측정치를 둘러싼 혼선을 확인하고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대안적 측정치를 제시한 것 또한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애 하위유형별 인지구조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자기애 내담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되면 이들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통합이 높은 웅대통합형의 내담자라면 모든 것을 경직되게 웅대성으로만 보는 관점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통합 수준은 낮추고 분화 수준은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하게 분화가 높은 분화형의 경우 너무 다양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명료한 자기인식이 결핍된 상태이므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등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다. 셋째, 4개의 자기에 하위유형들이 독립된 실체를 지니면서도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임상가들마다 각자 개념화한 여러 자기에 모델을 자기 조직화라는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보다 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자기에 이론을 통섭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4개 유형의 임상적 실체를 인지내용과 인지구조를 관련지어 논의에서 기술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Millon 등(2004)은 '성격의 구조가 내용을 담고 그 내용물이 성격 특질을 형성하여 구조에 다시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격의 구조와 내용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기술하였는데, 인지내용이 인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인지구조가 내용을 결정하는지 등 두 요인의 인과관계가 추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논의에서 기술한 각 하위유형의 임상적 실체가 더 명료해 질 것이다. 둘째, 인지 복잡성의 분화와 통합의 관계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 또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합이 분화의 연속선에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분화와 통합은 서로 독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점이 부족한 것은 비단 인지 복잡성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 구조 연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Luo & Watkins, 2008). 본 연구에서 분화와 통합이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두 요인이 반드시 직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분화와 통합을 별개로 두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예: Adam-webber, 1969; Smith & Leach, 1972), 추후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지 복잡성 연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연구 결과 불일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제한점은 분석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인 변량분석은 대체로 각 표본들의 수가 동일하고 적어도 사례수가 30 이상이 될 것이 추천되는데(채구묵, 2010) 본 연구에서는 4개 유형 모두 사례수 30 이내의 비동일 표본이었다. 또한 이렇게 적은 사례수로 여러 차례의 변량분석을 한 것은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례수를 충분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제한점은 남녀 간 성차 구분 없이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DSM-5(APA, 2013/2015)에 의하면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대체로 남자의 유병율이 전체의 50~75%로 여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영윤, 이은진, 김범준(2011)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간 성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들에 대해서 성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는지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제안할 점은 지금까지 자기에의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현적 혹은 건강한 자기에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 척도(Rosenthal, Montoya, Ridings, Rieck, & Hooley, 2011)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데,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를 사용해서도

남녀 간 성차가 확인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NPI와 PNI는 측정하고 있는 자기애 구성개념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점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황선정, 2014; Ackerman, Donnellan, & Robins, 2012; Cain et al., 2008 등).

병리적 자기애를 자기 조직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내적 세계에 직접 다가가는 방법이 된다. Kelly(1955)가 언급한 것처럼 이는 ‘그 사람의 눈이 되어 그들이 자신과 세상을 묘사하는 방식을 직접 이해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상담 장면에서 병리적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내담자를 치료적으로 공감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황선정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윤, 이은진, 김범준 (2011). 대학생의 자기애,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 97-113.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07-521.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정락 (1983). 개인적 구성개념 이론 내에서의 인지복잡성. 임상 및 상담심리학회보, 4(1), 95-108.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13).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조성호 (1999).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채구묵 (2010).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양서원.
- 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아동의 대인관계 군집유형과 부모요인간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03-122.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9(4), 1135-1143.
- 황선정 (2014).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구성: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의 적용.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5). 병리적 자기애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의 절단점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75-303.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대한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

- 반, 29(3), 507-53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E*). (권준수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년에 출판)
- Ackerman, R. A., Donnellan, B., & Robins, R. (2012).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 141-155.
- Adams-Webber, J. R. (1969). Cognitive complexity and socia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211-216.
- Adams-Webber, J. R. (1979). *Personal construct theory: Concept and applications*. New-York: John Wiley & Sons.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9*, 12-20.
- Alarcón, R. D. & Sarabia, S. (2012). Debates on the narcissism conundrum: Trait, domain, dimension, type, or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 16-25.
- Alatiq, Y., Crane, C., Williams, J. M. G., & Goodwin, G. M. (2010). Self-organization in Bipolar Disorder: Replication of compartmentalization and self-complex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479-486.
- Angelillo, J., Cimboic, P., Doster, J., & Chapman, J. (1985). Ordination and cognitive complexity as related to clinical depress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3*, 546-553.
- Bannister, D. (1960). Conceptual structure in thought disordered schizophrenics. *Journal of Mental Science, 106*, 1230-1249.
- Bieri, J. (1955).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 and predict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263-268.
- Bieri, J. Atkins, A. L., Briar, S., Leaman, R. L., Miller, H., & Tripodi, T. (1966). *Clinical and social judgment*. New York: Wiley.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Dale, K. Y., Odegard, A., Tschudi, F., Cromwell, R., Saunders, B., Elden, A., & Holte, A. (2010). Cognitive complexity and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3*, 158-165.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Dimaggio, G., Semerari, A., Carcione. A., Nicolò. G., & Procacci. M. (2007).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odel and treatment. In G. Dimaggio (Ed.), *Psycho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Metacognition, States of Mind and Interpersonal Cycles*, (pp. 81-115).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Dimaggio, G., Nicolò. G., Fiore, D., Centenero, E., Semerari, A., Carcione. A., & Pedone, R.

- (2008). States of mind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ree psychotherapies analyzed using the grid of problematic states. *Psychotherapy Research*, 18, 466-480.
- Don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Dunnett, G. (1988). *Working with peopl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23.
- Feixas, G., Lopez, J., Navarro, J., Tudela, M., & Neimeyer, R. A. (1992). The stability of structural measures derived from repertory grid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5, 25-39.
- Feixas, G., Moliner, J. L., Montes, J. N., Mari, M. T., & Neimeyer, R. A. (1992). The stability of structural measures derived from repertory grid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2, 49-54.
- Feixas, G., Erazo-Cacedo, M. I., Harter, S. L., & Bach, L. (2008). Construction of self and others in unipolar depressive disorders: A study using repertory grid techniqu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 386-400.
- Foster, J. D., & Campbell, W. K. (2007). Are there such things as "narcissists" in social psychology? A Taxometric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321-1332.
- Fourie, D. F. (2010). Look, but don't touch me!: Narcissist behavior and the conservation of ambivalenc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3, 143-157.
- Fransella, F., Bell, R., & Bannister, D. (1977). *A manual for repertory grid technique*. London: Academic Press.
- Fransella, F., Bell, R., & Bannister, D. (2004). *A manual for repertory grid technique(Second edition)*. England: John Wiley & Sons.
- Gabbard, G. O. (2005). 역동정신의학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이정태,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Guidano, V. F. (1987). *Complexity of self*. New York: Guilford Press.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rvath, S., & Morf, C. C. (2009). Narcissistic defensiveness: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of worth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252-1258.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ernberg, 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5년에 출판).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ndfield, A. W. (1971).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therapy*. Chicago: RanMcNelly.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uo, W., & Watkins, D. (2008). Clarifying the measurement of a self-structural process variable: The case of self-complex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8(2), 143-165.
- Mahoney, M. (2003). Constructivism: History and current relevance. In M. J. Mahoney (Ed.), *Constructive Psychotherapy*.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Miller, J. D., & Campbell, W.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 449-476.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ath, R. (2004). Assessment and therapy of the personality disorders. In T. Millon (Ed.),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 (pp. 117-148). John Wiley & Sons.
- Morf, C. C., & Rhod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Neimeyer, R. A., & Raskin, J. D. (2000). *Constructions of disorder: meaning-making frameworks for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wak, A., Vallacher, R. R., Tesser, A., & Borkowski, W. (2000). Society of self: The emergence of collective properties in self-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7(1), 39-61.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e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65-379.
- Rafaeli-Mor, E., & Steinberg, J. (2002).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31-5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obins, R. W., Tracy, J. L., & Shaver, P. R. (2001). Shamed into self-love: Dynamics, roots, and function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Inquiry*, 12, 230-236.
- Ronningstam, E. (200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acing DSM-V. *Psychiatric Annals*, 39, 111-121.
- Rosenthal, S. A., & Hooley, J. M. (2010). Narcissism assessment in social-personality research: Does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health result from a confound with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453-465.
- Showers, C. (1992).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58-971.
- Smith, S., & Leach, C. (1972). A Hierarchical measure of cognitive complex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3, 561-568.
- Suedfeld, P. (1994). President Clinton's policy dilemmas: A cognitive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15, 337-349.

- Viney, L. L. (1992). Social science research in the 1990s: The contribution of constru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5, 295-305.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Young, J. E. (1996).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5). 심리도식치료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아, 유성진, 이지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Zeigler-Hill, V., & Besser, A. (2011). Humor style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196-1201.
- Zeigler-Hill, V., Clark, C. B., & Pickard, J. D. (2008). Narcissistic subtypes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76, 753-774.
- Zeigler-Hill, V., Green, B. A., Arnau, R. C., Sisemore, T. B., & Myers, E. M. (2011). Trouble ahead, trouble behind: Narcissism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2, 96-103.

원 고 접 수 일 : 2014. 1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5. 6. 7
게 재 결 정 일 : 2015. 6. 30

Study on Subtype Classifica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Focusing on Self-Organization in Constructivism

Seon Jeong Hwang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concept of self-organization in constructivism could be applied in classifying sub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Specifically, we tried to identify if significant subtypes could be identified through combining cognitive contents and structure. With 93 selected subjects (out of 128 subjects who passed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s cutoff score) through repertory grid interview, we conducted cluster analysis with two factors from each category, cognitive contents (grandiosity, vulnerability) and cognitive structures (differentiation, integration), to identify how subjects are subdivided. As a result, four significant subtypes were verified; Differentiated, Grandiose Integrated, Vulnerable, and Vulnerable Grandiose. To identify whic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ach subtype has, one-way ANOVA was employed with scores based on narcissism, early maladaptive schema, defense style,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sult showed that each subtype has exhibited differ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athological narcissism subtypes, self-organization, repertory grid technique, grandiosity, vulnerability, differentiation, integration*

부 록

〈부록 1〉 Gallifa 등(2000)의 연구 및 렘 그리드 매뉴얼 2판(Fransella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한 분화 및 통합 측정치 목록

구분	지표명	고안자	정의	방향성
분화	Bieri	Bieri (1955)	다차원적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는 경향	점수 높을수록 고분화
	FIC ^a	Landfield et al (1971)	개인이 사용하는 구성개념 차원의 수	점수 높을수록 고분화
	PVAFF ^b	Bonarius (1965)	구성개념 요인 분석시 제1축에 수렴되는 변량의 비율	점수 낮을수록 고분화
통합	intensity	Bannister (1960)	구성개념들 간의 연결 강도	점수 높을수록 고통합
	extremity	Fransella et al (2004)	극단의 점수로 평정된 구성개념의 빈도	점수 높을수록 고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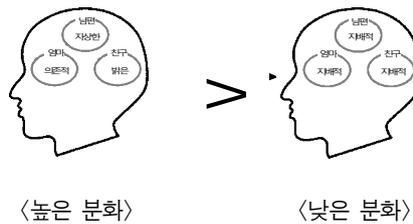
a. FIC (Functionally Independent Construction)

b. PVAFF (Percentage of Variance Analysis First Factor)

<부록 2> FIC 및 extremity의 산출 공식 및 예시

1. FIC의 산출 공식과 FIC가 측정하는 분화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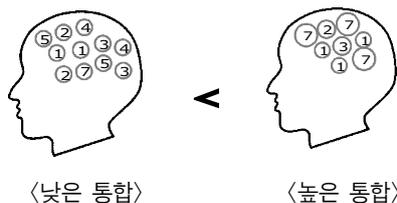
$$FIC = \frac{\text{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개념의 수}}{\text{전체구성개념 쌍의 수}} \times 100$$



<설명>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 모두 각각 3개의 요소(남편, 엄마, 친구)를 갖고 있다. 왼쪽 인물은 각 요소를 평가하는데 사용한 구성개념이 3가지 종류지만, 오른쪽 인물은 각 요소를 모두 같은 구성개념(‘지배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왼쪽 인물이 오른쪽 인물보다 분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각 인물이 보유한 전체 구성개념 쌍의 수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왼쪽 인물의 $FIC = (3/10) \times 100 = 30$ 이고, 오른쪽 인물의 $FIC = (1/10) \times 100 = 10$ 이므로 왼쪽 인물이 오른쪽 인물보다 분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extremity의 산출 공식과 extremity가 측정하는 통합의 예

$$\text{extremity} = \frac{1 \text{ 또는 } 7 \text{ 을 평정한 빈도}}{\text{전체구성개념 쌍의 수}} \times \frac{100}{\text{전체구성개념 쌍의 수}}$$



<설명> 왼쪽 인물은 구성개념을 평가할 때 사용한 척도의 값이 1, 2, 3, 4, 5, 7 등 5개 종류로 다양한 반면, 오른쪽 인물은 1과 7의 극단의 값으로 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왼쪽 인물보다는 오른쪽 인물의 통합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각 인물이 보유한 전체 구성개념 쌍의 수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왼쪽 인물의 $\text{extremity} = (2/10) \times 100/10 = 2$ 이고, 오른쪽 인물의 $\text{extremity} = (6/10) \times 100/10 = 6$ 으로 오른쪽 인물이 왼쪽 인물 보다 통합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